

과거 문화유산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27일 개최... 개막작 '꼭두 이야기' · 폐막작 '청춘의 십자로' 선정

2019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International Intangible heritage Film Festival, 이하 IIFF)의 개·폐막작을 공개했다. 올해는 영화와 공연이 만나 과거의 영화유산과 문화유산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재창조된 특별한 작품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막작은 필름 콘서트 '꼭두 이야기'(2018)로 김태용 감독과 방준석 음악감독이 국립국악원과 함께 만든 공연 '꼭두'를 영화로 옮긴 작품이다. 할머니 물레 꽃신을 내다 판 남매가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4명의 꼭두와 함께 다시 꽃신을 찾으러 가는 여정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이는 '꼭두 이야기'는 영화 상영과 함께 20여 명의 국립국악원 악단의 라이브 연주가 더해진 '필름 콘서트'로 국내 외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그리운 사람을 떠나보내는 전통 장례 풍습에 영화적 상상력과 국악 및 전통 무용의 멋스러움이 더해져

다채로운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아울러, 2019 IIFF의 대미를 장식할 폐막작은 변사 공연 '청춘의 십자로(1934)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영화이며 '문화재 제488호'로 지정된 안종화 감독의 작품으로 고향을 떠나 새로운 삶을 위해 경성으로 온 세 청춘의 이야기다. 이 작품은 2007년 복원, 공개된 후 변사(무성영화해설사), 밴드 라이브 연주, 배우들의 뮤지컬 공연을 결합한 복합문화공연으로 재탄생했다. '청춘의 십자로'의 변사 공연은 80여 년 전 과거와 현재를 이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2019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IIFF)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에서 개최되며, 모든 영화 관람과 행사참여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063-220-8253 / iiff2019@naver.com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운영사무국)이나, 홈페이지(iiff.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국립합창단, 내일 고창서 흥겨운 영화음악 합창여행

고창군은 오는 17일 오후 7시30분 고창문화의전당에서 국내 합창음악의 선두주자인 제1국립합창단과 함께 흥겨운 합창여행 '영화음악 여행'을 연다.

이번 공연은 고창문화의전당이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실시했다. 이날 100인의 국립합창단과 뮤지컬합스오케스트라단은 협연을 통해 대중에게 친숙한 영화와 애니메이션, 뮤지컬 음악 등을 웅장하고 풍성하게 선보일 계획이다.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던 캐리비안의 해적,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애니메이션 알라딘, 하울의 움직이는 성, 라이온 킹 OST를 연주하고, 뮤지컬 합창곡 지킬 앤 하이디, 영웅, 노트르담 드 파리, 오페라의 유령 모음곡 등을 들려준다.

국립합창단은 1973년 창단된 한국 최고의 전문합창단으로 합창예술운동을 위한 선두주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제10대 윤의중 예술감독이 이끌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국립합창단의 최고의 하모니로 합창의 감동과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귀한 무대이자, 모두가 하나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연시간은 약 70분~80분 정도이며, 초등학교생 이상 관람이 가능하다. 공연예매는 고창문화의전당 홈페이지와 현장예매를 통해 가능하며, 관람료는 일반 3000원, 학생 1500원이다. /고창=김병식 기자

사색의 계절 가을, 마음으로 나눌 수목展

문화가 꽃피는 무주최북미술관 전시회 · 교육 다채롭게 진행

무주최북미술관 기획전 〈수목정산·산수화의 현대적 계승〉이 10월 27일까지 개최된다. 충북대학교 오송규 교수와 경희대학교 임진성 前 겸임교수, 한성대학교 정하경 명예교수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는 전통회화의 맥을 되살리고 전통산수화의 중요성을 되새긴다는 취지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오송규 교수의 〈소유유·여정〉 등 화선지에 수목작품, 임진성 교수의 〈동유금강도〉 등 화선지에 수목과 니금작품, 그리고 정하경 교수의 〈울릉도의 아침〉 등 화선지에 수목 답채작품 총 17점이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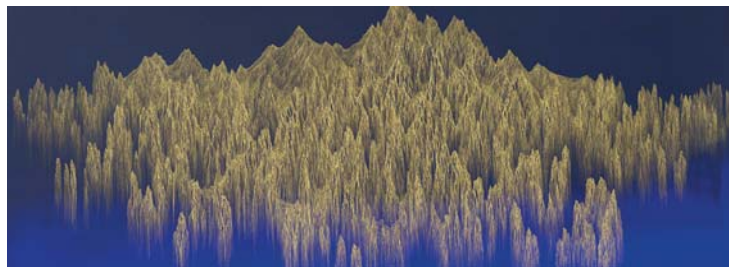
무주최북미술관 양정은 학에서는 "사색의 계절 가을을 맞아 무주가 마음으로 나눌 수목展을 준비했다"라며 "새로운 시도가 깃든 작품들이 수목을 향한 시인의 범위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인의 깊이를 더욱 확장시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제1종 국립미술관인 무주최북미술관 이용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월요일 휴관)다.

한편, 무주군은 최북미술관·김환태문학관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프로그램은 성인 미술·문학교실과 어린이 미술교실로 최북미술관 성인



오송규 교수의 소유유·여정



임진성 교수의 동유금강도

미술교실&김환태문학관 성인 문학교실(수업 매주 월요일 19:00~21:00)은 9월 16일부터 12월 2일까지, 그리고 최북미술관 어린이 미술교실(초등 1~2년생 대상/ 수업 매주 토 13:00~15:00 / 모집 9. 16.~18. 선착순 20명)은 9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된다. (문의 : 063-320-5636) /무주=전문선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오로지 오롯한 고을, 완주'가 오는 29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오로지 오롯한 고을, 완주' 29일까지 연장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과 완주군청(군수 박성일)은 지난 6월 18일부터 공동으로 진행해오던 특별전 '오로지 오롯한 고을, 완주'를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전시는 완주만의 특색 있는 역사 정체성을 모색하고 그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국립전주박물관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의 역사문화유산'의 13번째 전시로 기획됐다. 현재까지 완주군민을 비롯한 전북 도민과 외부 관광객까지 5만여 명이 관람했다. 특히 완주와 전북 지역민들의 반응이 뜨겁

다. 연계 학술대회와 더불어 완주 로컬 프리마켓, 뮤지컬 '삼레, 다시 볼' 등 다양한 문화 행사에서 시민들은 자리를 가득 메웠으며, 지역의 역사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자부심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완주군청의 부서장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관람을 시작한 이후 완주군에 위치한 주요 기관장들 뿐만 아니라 구이면·화산면·운주면을 비롯한 각 면 및 읍면도 전시장을 찾았다.

관계자는 "남은 기간 동안 치열하게, 때로는 답답하게 이 땅을 살아왔던 완주(完州)사람들의 이야기를 천천히, 완주(完走)해보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